

'광주 시민의발' 택시 왜이러나

난폭운전에 시내 빙빙돌며 바가지 요금 요구 항의때 "고발할 테면 하라" 배짱

- 1 시끄러워 못 타겠어요
- 2 거리의 '폭군'인가
- 3 친절만이 살길

일부 '불친절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일부러 길을 돌아 요금을 더 챙기거나,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는 등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리저리 우회운전=이모(여·22)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앞에서 북구 두암동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기사는 "어디로 가면 빨리 가지"라고 혼잣말을 하더니, 광주 시내 곳곳을 돌기 시작했다.

거스름돈 주지않고 줄행랑

택시는 서구 중앙동 집봉터널~광천동 금호랜드 4거리~신세계 백화점~운암동 고가도로를 이리저리 돌며 서방시장에 도착했는데, 요금이 이미 9천원이 넘었다. 보통 금호동에서 두암동까지의 택시비는 6천원~8천원.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1천원 이상 더 나온 것이다.
기분이 불쾌해진 이씨는 서방시

장에서 내려 두암동까지 걸어갔다. 이씨는 "버스를 두고 택시를 타는 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돈이 너무 아깝고 기분만 상했다"며 이 택시를 광주시에 신고했다.

◇목적지 지나치고 추가요금 요구=지난 7일 광산구 도산동에서 택시를 탄 김모(34)씨. 기사는 목적지인 월곡동 하이마트까지 가는 도중 3번이나 합승을 하려고 차를 세웠다. 또 목적지를 한 구간 지나치는 바람에 차를 되돌려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4천900원이었던 요금이 5천800원으로 올라갔다.

김씨는 1만원을 준 뒤 "처음 하이마트를 통과할 때 요금만 내겠다"고 했지만, 기사는 "다 주라"고 우겨 실랑이가 벌어졌다. 기사는 말다툼을 하면서도 차를 신가동까지 몰고갔고, 김씨는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간 내렸다.

하지만 택시는 그대로 달아 버렸고 결국 김씨는 하이마트까지 20분이 넘게 걸어가야 했다. 김씨는 이 기사가 소속된 택시 조합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고발할 테면 하라"는 대답만 들었다.

◇신호 위반하고 되레 욕설=지난 6월 동구 호남동 태평극장 앞에서 아버지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11·광주초 4년)군. 그들은 녹색 신호등에 맞춰 발걸음을 뗐지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손쓸 길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조씨 부자가 겪은 황당무계한 일은 여기서 시작했다. 인도에 있던 한 시민이 택시에게 "조심하라"며 고함을 질렀는데, 기사가 조씨 아버지가 소리 친 것으로 오인한 것.

8월 현재 불편신고 608건

택시기사는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멈춘 뒤 조씨 부자에게 욕을 퍼부었다. 뒤에 있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막무가내였다. 택시 기사는 조 군의 아버지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맘대로 하라"며 배짱을 부리기도 했다.

조 군은 광주시청 계시관에 "이 택시기사를 꼭 처벌해 달라"는 글을 남기며, 명든 동심(童心)을 호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택시와 관련한 교통불편신고 건수는 8월 말 현재 608건. 법인택시(406건)가 개인택시(202건)보다 2배 넘게 많았다. 유형별로는 ▲합승 97건 ▲부당요금 81건 ▲승·하차 거부 77건 ▲도중차차 40건 ▲호객행위 12건 ▲미터기 미사용 5건 등이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10만명당 범죄 4,426건 광주, 7대 도시중 '최다'

절도·사기·횡령 등 경제형 범죄 많아

특히 광주는 절도·사기·횡령 등 경제형 범죄와 교통사고, 성매매 범죄 발생이 다른 도시 보다 많았다. 주요 범죄유형별(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 기준)로는 절도·사기·횡

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광주가 1천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이 757건으로 가장 적었다. 교통사고와 성매매도 광주가 각각 499건, 15건으로 7개 특별·광역

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범죄와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는 서울이 각각 52건과 7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권남용·수뢰 등 공무원 범죄는 대전이 6명으로 1위였다.

이밖에 ▲음주운전은 대전(1천 243건)이 ▲식품위생법위반범죄는 부산(47건) ▲청소년보호법위반은 대구(18건) ▲향토예비군법위반은 서울(60)이 가장 많이 지역마다 범죄 양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607명으로, 전국 평균(509명)을 크게 웃도는 등 경찰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행복하세요"

광주시·국제라이온스355-B1지구,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의 후원으로 무료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2박3일의 신혼 여행을 떠났다.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품의공원 웨딩홀에서 열린 제12회 광주장애인합동결혼식. 박성실·이경미 부부 등 가정형편상 결혼식 없이 등거해온 영세 장애인 부부 8쌍이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첨단산단 신용교차로 지하차도로 건설

첨단산단 2단계 진입관문인 신용교차로(제62호 교통광장)가 지하차도로 건설된다.

광주시는 첨단산단 2단계 진입관문인 신용교차로(제62호 교통광장)를 왕복 4차로(연장 760m)의 지하차도로 건설하기로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완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업비 142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8.32km에 1천800억원이 투입돼 호남고속도로 동림IC와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북광주IC를 연결하는 공사로, 신용교차로가 입체화될 경우 이 일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내년 1월부터 본선도로공사와 함께 지하차도 공사를 추진해 2008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용교차로의 입체화로 첨단산단과 하남산단 등지의 입주업체들의 물류비가 크게 절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미룬 적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40개 아파트 중 10개 아파트는 우리 지역과 계약을 맺지도 않았는데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 40여개 아파트단지 재활용쓰레기 수거 제때 안돼 불편

광주시 서구지역 아파트 관리소장이 "페비닐 등 일부 재활용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서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23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상무·화정동 관내 40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들은 관할구청에 ▲대형 폐기물 1주일 2회 이상 수거 ▲수탁업체 이원화 또는 폐기물 수거 구청 직영 ▲업체 선정기준 공개 ▲재활용품 기피 품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광주시 서구 세하동 S환경에서 재활용품 수거 처리를 맡고 있는데, 갠·고철·폐지

등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은 바로 수거를 해가고, 페비닐·헌 가구 등 이익이 적은 쓰레기는 최장 2주일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포기한 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각종 페비닐 등을 담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 관계자는 "실제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해당업체가 지켜야 할 수거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S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된 페비닐 등의 경우, 2주 이상 처리를

생활안내		신고	
교통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월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위원회 상해예방센터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1888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청 1588-9090 병무민원상담 광주연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무고실 232-0643-4 복합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112 국민안전 226-0112 전남경찰청 233-2828 광주지청 021118 사이버센터 가정폭력 여성긴급국번없이 1366 여성자문상담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노동인권지원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국민안전 1389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직번호(24월) 서한기 227-3001 법무사회 법률상담(24월) 위승환 239-1809 		

"기차 타고 단풍여행 떠나세요"

광주역 내달 4차례 운행

광주역에서 출발하는 단풍열차가 11월 한 달 동안 4차례 운행된다.

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지사장 박태근)는 22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단풍관람열차'를 다음달에 4차례 운행한다"고 밝혔다.

'단추의 유혹 열차 타고 단풍구

경'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단풍열차는 금오산, 소백산 등 전국 유명 단풍관광지를 골라 하루 동안 여행을 하게 된다.

단풍열차는 다음달 2일 금오산을 시작으로 ▲6일 소백산·속리산 ▲7일 양산 통도사 ▲10일 충주호 유람 및 고수동굴을 향해 차례로 출발한다.

단풍열차는 매회 7량에 400명의 관광객을 태운다. 여행 당일 오전

7시 광주역(또는 송정역)을 출발, 낮 12시에 목적지에 도착하며, 목적지에서 약 6시간 단풍관광을 마치고 같은 날 밤 10시에 광주로 돌아오는 코스다.

운임은 어른 1인 3만6천400원~4만2천300원, 노인 3만1천800원~4만3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광주역(511-6367)이나 광주지사 영업팀(605-2168)으로 하면 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0월 25일 취업박람회

임대사업자 & 직원 모집

본 회사가 임대사업자 및 직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합본인관청호출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합리적인방으로

www.hanboGAGLI.com

한보가구 082-225-0100

사무용의지 전문농업형태

토치 광주총판

사무용의지 전문농업형태

토치 TORCH

사무용의지 전문농업형태